

[찬양과 큐티 13]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김희석 성가사 / 2001 / 페이지 수: 1

얼마 전 토요일 저녁 때의 일이다. 주말의 영화나 오락프로까지 보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 날 온전하게 성가대를 지휘하며 예배드리기 어렵기에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네살 먹은 아들놈이 잠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놀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다. 일찍 자야한다고 타이르고 얼러봤지만 놈은 막무가내였다.

누워있는 내 옆에서 엄청난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날 닮아서인지 목소리 한나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놈의 울음은 글자 그대로 대포 소리다. 화가 난 나는 아이를 들어 거실로 옮겨놓고 다시 방 침대에 누웠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은 ‘혹시 옆집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엄청난 소리였다. 나는 ‘제발 그만 울고 들어와라. 그러면 안아줄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 무반응에 놈이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난 순간 회초리를 들었다. 세 대째 때리는 순간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며 아들이 내 품으로 안겨들었다. 내게 안겨 흐느끼는 아들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조금 흥분했었나보다.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이 발목을 때렸는지 아들놈은 계속 발목을 잡고 흐느끼는 것이 아닌가. “어디가 아파?” 소리를 질렀지만 걱정이 앞섰다. 옆에서 바라만 보던 아이 엄마가 안으려하자 그것을 뿌리치고 놈은 나에게만 안겨서 발목을 잡고 흐느낀다. 역시 우리 아들놈은 엄마보다 아빠인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흐뭇해졌다.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발목을 주무르며 재우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깨달음을 주셨다.

3년 전 음반작업의 실패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나님 내가 야곱보다 못한게 뭐지요? 그는 자기 방법대로 살았지만 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야곱은 축복하시고 나에게는 시련을 주십니까?”

3년이 지났지만 그 기도의 답을 알지 못했었다. 환도 뼈가 부러져가며 천사와 싸워 주께 간구하던 야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했던 야곱,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한 야곱,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안쓰럽고 사랑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이다. 내 이성과 지식, 고집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나였음을, 주님 곁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당연히 날 안아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셨을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준비되지 못한 나를 훈련시키시며 안고 안쓰러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작 느꼈더라면...’

아이의 발목을 주무르는 내 입에선 깨달음의 찬송이 흘러 나왔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찬송가 364장)

* 출처 : 큐티와 일대일